

2026 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일본 가톨릭 생명, 평화, 인권위원회
위원장 모리야마 신조 주교

올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담화 주제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입니다. 교황 레오 14 세 께서는 마태오 복음서의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태오 복음 18:5)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라는 말씀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통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이들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기본적 인권은 인정되지 않았습시다만, 현대 세계에서, 아이들의 권리나 존엄을 위협하는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하기는 힘들며, 그에 따른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각지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는 세계 속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교황님의 부름에 응하여, 우리도 가장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원조하고, 그 생명을 지켜가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나아 갑시다.